



4 월의 낙스(NAKS) 소식

[특별 연속기획 시리즈] 낙스(NAKS)의 창립, 그리고 뒷이야기(1)

창립 40 주년, 1980~1981 년의 기억



트라이앵글 한국학교 이사장 서 문 원

시작하는 말 – 1962 년 초가을에 미국에 와서 지금까지 나는 교회, 한국학교, 한인과학기술자협회, 그리고 나머지를 생업에, 이렇게 네 분야에 거의 꼭 같은 시간을 할애하며 살아왔음을 발견한다. 그래도 아직 잘살고 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루도 잊지 않고 가슴으로 사랑하며 봉사한 분야는 2 세 교육과 한국학교**라고 하겠다.

1974 년 30 대 시절, 그린스보로(Greensboro, NC)에서 어린 두 아이를 기르면서 ‘그린스보로 한글학교’를 창립하여 교장으로, 교사로 14 년 봉사하는 동안에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를 몇몇 분과 함께 발기(1980 년), 창립(1981 년)하고 나서 3 대 회장, 이사장 임무를 다 끝낸 뒤 숨을 내쉬며 이젠 손을 떼었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오늘도 나는 내가 사는 곳 롤리(Raleigh, NC)의 트라이앵글 한국학교 이사장직을 10 년째 맡고 있으니 이 일에 끝이 있다고 생각한 것은 잘못이었다.

금년에 낙스가 40 주년을 맞는다고 하는데 1980 년에 함께 이 일을 시작했던 분들이 하나둘 모두 세상 떠나시고,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으신 허병렬 선생과 내가 남아 있으니 감회도 깊다. 편집자가 부탁한 이 글을 오래 미루다가 소중한 기회 같아 기억을 더듬어 옛날이야기를 몇 자 쓰기로 하였다. 1988 년 중반, 내가 3 대 회장을 끝내는 시점까지 이미 기록되어 있는 역사가 사건의 기록이라면 나는 그 사건들이 우리 이민 1 세들의 삶 가운데서 느낌으로, 사랑으로 고통으로, 엮어졌던 눈물의

씨앗이었음을 깨달으면서 그런 몇 이야기들을 남기려 한다. 1988 년 이후 낙스를 위해 크게 기여한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역사의 시발점 - 모든 역사가 그렇듯 낙스의 탄생은 계획이 아닌 우연에서 시작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모든 우연은 일어나야만 하는 필요조건을 수반한다고도 하겠다. 때는 1980 년 12 월 13 일, 토요일 아침,
장소는 뉴욕한국학교(존 F. 케네디 하이스쿨, 99 Terrace View Ave, Bronx, NY 10463). 1973 년 5 월 5 일에
32 명의 학생으로 시작된 이 학교의 **허병렬 교장은 뉴욕 한국학교 주최로 “동부지역 한국학교
대표자회의 및 교사 연수”를 열었고, 이 모임엔 뉴욕, 뉴저지, 워싱턴, 노스캐롤라이나 등 여러 지역에서
교장들과 교사들이 약 30 명 참석하였다.**



주하성 초대 총회장/ 제 2 대 이사장 강경식 제 2 대 총회장/ 제 3 대 이사장 제 4 대 총회장/ 제 4 대 이사장

이 뜻깊은 모임은 1965 년 미국의 이민법 개정 (Hart-Celler Act)에 따라 1970 년대에 100 만 명 이상의
한국인이 미국으로 이주하게 된 역사적인 사건, 그리고 이에 따른 이민 2 세들의 한국어 교육이 큰
이슈로 대두 되어 있던 무렵이었다.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 한글학교, 한국학교가 시작되었는데
워싱턴 통합한국학교(1970 년, 개칭), 디트로이트 세종학교(1972 년), 뉴욕 한국학교(1973 년),
그린스보로 한글학교(1974), 로드아일랜드 한인학교(1978 년) 등은 교회에 속하지 않고 시작된
커뮤니티 소속 한국학교들 가운데 대표적인 학교들이었다.

수련회를 끝낸 학교 대표자들은 모두가 가지고 왔던 숙제의 해답을 얻었다기보다는 건물 없는 학교를
교과서 없이 열악한 재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다른 많은 동료들이 있음을 발견한 위로와 기쁨으로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가자고 했다.

‘인천집’ 빈대떡과 NAKS - 모두 자비로 뉴욕에 온 교장들이라, 값싸고 맛있는 집을 찾다가 간 곳은
Broadway 와 5th Avenue 사이 30 가에 있는 ‘인천집’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역사적인 디너였다. 저녁을
먹으러 나가는데 버팔로 한국학교에서 온 김석연 교수는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저를 못

알아보시겠어요?” 하고 시비를 걸어왔다. “글쎄요, 어디서 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하는 내 답변을 즐겁게 받아 웃으면서 “만나긴 어디서 만나요? 내가 서박사한테 서울공대에서 국문학을 가르쳤던 김정숙 교수예요! 너무 젊어 보여 못 알아보시는구나, 내가 참 성형수술을 잘했나 봐요! 그리고 제 옛 이름 ‘김정숙’을 김석연으로 바꿨으니 어떻게 알아보시겠어요?” 하며 희색이 만면하였다. 이렇게 하여 20 여 년 만에 옛 교수를 만나게 되었고, 이 분은 당시 서울대 철학과 교수로 독일에 가서 실존철학을 연구하여 유명하게 되어 버팔로 뉴욕주립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었던 조가경 박사의 부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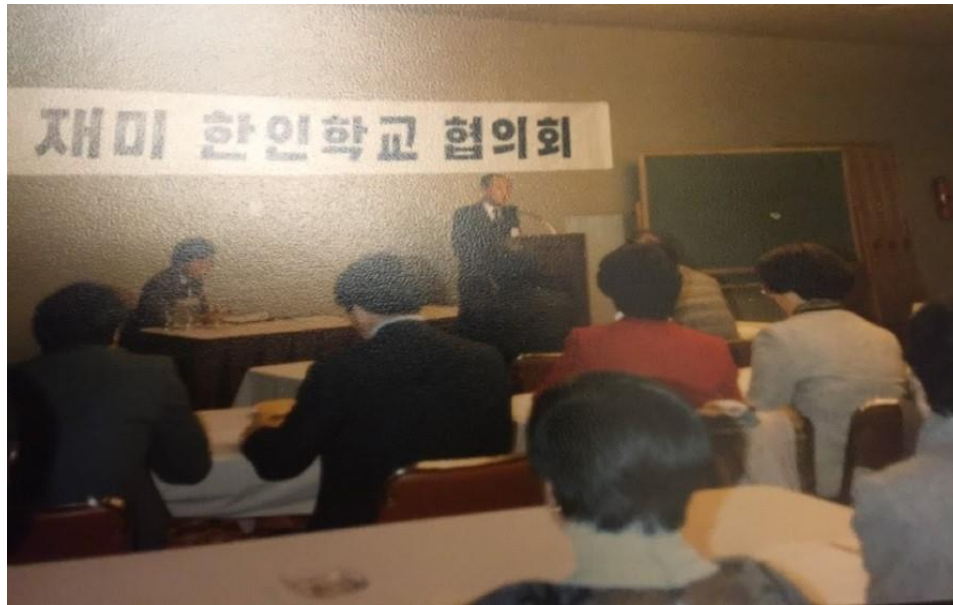
NAKS 발기총회 - 이날 저녁 모임은 동부지역 한국학교 대표자 회의 및 교사 연수를 끝낸 회식 모임이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NAKS의 발기총회'라고 보아야 된다. 제일 멀리서 온 나는 “우리가 이렇게 저녁만 먹고 헤어지지 말고 ‘동부지역 대표자회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전국협의회’를 만들기 위해 한번 다시 모이자”고 주장하였다. 놀랍게도 반대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저녁을 먹고 떠나기 직전에 급히 준비위원회를 만들고 이름까지 **‘재미한국학교협의회’**로 정하였다. 타자마자 내린 급행열차였다.

이날 저녁을 같이 먹은 사람은 열 사람이었는데 이때를 기점으로 **1981년 낙스가 창립되기까지 핵심역할을 계속 맡아 준 분들은 아래 여섯 사람**이다.

허병렬(국문학자, 전 서울사대부국, 이대부국 교사 - 뉴욕한국학교 교장), **박창해** 박사(전 연세대 국어학 교수 - 한국어학당 창시자), **주하성** 박사(워싱턴 조지메이슨대학 한국어 교수, 노던 버지니아한국학교 교장), **김석연** 교수(버팔로 뉴욕주립대 한국학 교수), **강경식** 박사(브라운대 문리학 교수, 로드아일랜드 한인학교 교장), **서문원** 박사(벌링톤 사 통계학자,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통계학/섬유공학 겸임교수, 그린스보로 한글학교 교장). 이날 허병렬 선생의 초청으로 참석 예정이었던 최응표 장로(고려서적의 사장)는 부득이 동석하지 못했으나 1년 후인 1981년 낙스 창립을 적극 후원한 분이였다.

이 밖에 **백예원**(목사, 브롱스 한국학교 교장), **박천래**(일리노이 한국학교 교장), **이서구**(워싱턴 한국학교 교장, NIH 연구원), **배윤열**(제일 한국학교 교장) 등은 이날 회의에만 참석하였다.

NAKS의 설립목적 - 급증하는 이민 1세 인구가 대도시, 중소도시에서 밀집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2세를 이 넓은 미국 땅에서 어떻게 길러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졌을 때 1970년대에 확실한 답을 얻기는 어려웠다. 당시 기본적인 교육철학을 정립시키기에는 **이민 1세의 삶이 너무 각박했지만, 한국말과 글을 가르쳐야 한다는 당위성을 논란할 여지가 없었기에 한국학교, 한글학교가 여기저기 생긴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그러나 막상 “*Why Korean in America?*” 하는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하기에는 이민 1세의 가치관이 통일되어 있지 않았고 40년이 지난 지금도 이에 대한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미국에서 세계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올바른 세계관을 가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뿌리를 알고 언어와 역사를 알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였다.



<재미한인학교협의회> 창립총회 1981. 4. 18 (토) 50 여명의 학교 대표자 참석
(장소: Hyatt Centric Arlington Hotel, Rosslyn, Virginia 22209)

그러나, 이런 가치관은 바람직스러운 반면 공유된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즉, 많은 이들이 지금도 한국의 언어, 문화, 전통, 역사를 모르고도 미국에서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미국 사회에 적응해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다만, 삶을 좀 더 잘 살게, 좀 더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한국학교가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다. 그것은 미술 작품이나 음악이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과 다르지 않다. 나는 어느 봄날 미국에서 태어난 우리 두 아이를 지켜보다 갑자기 “애들이 부모 탓에 할 수 없이 미국이란 땅에서 태어났구나” 하는 불쌍해하는 마음으로 1974 년에 한국학교를 창립했고 지금도 그런 생각으로 2 세, 3 세 어린아이들에게 한국을, 한국말과 글을, 문화를, 역사를 가르치고 있다. 어찌 생각하면 부모가 미국에 왔기에 우리 아이들은 이 풍요로운 미국 땅에서 태어났으나 '잃어버린 아이들'이 될 수 있기에 이를 면하게 하는 것은 우리 부모들의 의무라고 생각하였다.

풍요로운 미국 땅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
'잃어버린 아이들'이 될 수 있기에
올바른 세계관은 우리의 뿌리, 우리의 언어와 역사를 알아야...

*서문원 박사는 NAKS 창립위원(1980 – 1981), NAKS 3 대 회장(1987 – 1989), NAKS 6 대 이사장(1997 – 2000) 등을 역임하였고, 현재 트라이앵글 한국학교(2010~)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NAKS 5 월의 소식'에 계속>

[이달의 초점] 제 39 회 낙스 창립 40 주년 기념 온라인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총회장 김선미, 이하 낙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한국어 교육’이라는 주제로 2021년 7월 15일~17일 <제 39회 낙스(NAKS) 창립 40주년 기념 학술대회 및 정기 총회>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특별히 낙스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열리는 학술대회로, 온라인 행사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지난 40년간 낙스가 쌓아온 한인 후세들을 위한 정체성 교육 전문기관으로서의 업적을 기리는 의미 있는 대회이다. 그동안 거리상의 어려움이나 경비 등의 문제로 참여하지 못했던 교사의 참여를 높이고, 전국의 한국학교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양한 경험과 보람을 나누는 기회와 소통의 장이 될 것이다. 또한 미래 ‘정체성 교육전문가’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키우고,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보다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갖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별써부터 교사들이 대회 등록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참여와 효과적인 교육 성과가 기대되고, 낙스 회원교 소속 많은 교사들과 한국학교 관계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인 후세를 위한 ‘정체성 교육 전문기관’의 업적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영화 ‘미나리’의 스티븐 연, 등 유명인 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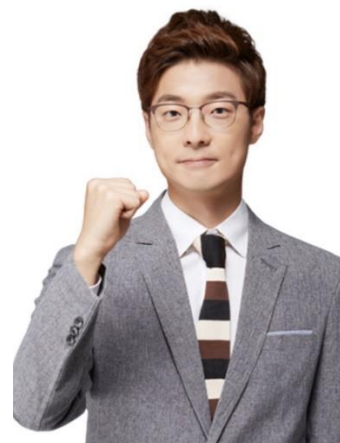
이번 낙스 창립 40 주년 학술대회를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화가이자 메릴랜드주 주지사 부인인 유미호건 여사의 축사를 비롯, 주 강사진으로 김경호(이미지코칭 교수), 김성곤(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김준우(EBS 한국사 강사), 스티븐 연(영화배우, 영화 '미나리' 주연), 이순희(UMBC 심리학자), 정재환(방송인, 한글학회 연구위원), Edward Shultz(전 하와이대학 한국학 연구소장) 등 미국과 한국을 아우르는 여러 분야의 유명인들이 강연을 맡아 큰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그 시작부터 뜨거운 열기를 북돋우고 있다. 특히, 한인 이민자 1.5 세로서 <영화 '미나리'>로 오스카상 남우주연상 후보였던 스티븐 연의 강의는 현장에서 우리 한인 2 세, 3 세의 정체성 교육을 담당하는 한국학교 교사들에게 큰 도전과 감흥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홍익인간' 정신에 바탕을 둔 한국학교 차세대 정체성 교육의 역할과 비전을 제시하는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의 강의도 관심을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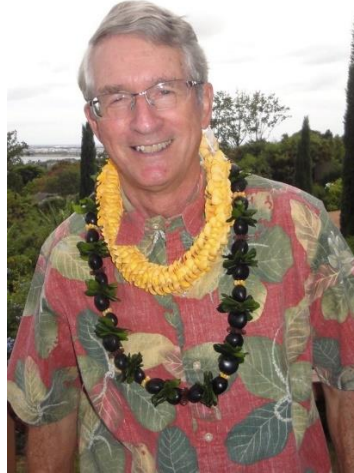
한편, 지금의 코로나 시대를 힘겹게 이겨내고 있는 학생과 교사를 위해 이 시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강의들도 준비되어 있다. **팬데믹 온라인 화상 강의 시대에 교사들의 심리적 회복과 마음의 안정을 도모하고, 교사들이 학생들의 정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그 밖에, 실제 한국학교 교육현장에서 추천된 우수한 교사진의 쟁쟁한 강의, 차세대교사를 위한 실용적 맞춤형 강의, 학교 행정가들을 위한 스마트코스 강의 등 실력 있는 교사양성을 위한 탄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학술대회 정규등록은 오는 5 월 31 일까지이며, 온라인 등록과 자세한 안내 사항은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홈페이지(www.naks.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학술대회' 온라인 등록 바로 가기

---> <https://www.naks.org/jml/library-history-culture-material-by-level/2046-3-1>





윗줄 왼쪽부터 김경호 이미지코칭 교수,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김준우 EBS 한국사 강사,
정재환 한글학회 연구위원, Edward Shultz 전 하와이대학 한국학 연구소장.

이달의 명언

소년들이여 야망을 품어라!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이사장 오 준 석

세대에 가장 잘 알려진 명언 중의 하나가 윌리엄 클라크 박사가 남긴 “소년들이여, 야망을 품어라!” (Boys, be ambitious!)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언뜻 듣기에 젊은 세대에게 큰 야망을 품고 이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라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 야망은 어떤 것일까요?

고국을 떠나 미국 땅으로 건너온 이민 1 세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아 부모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를 바랍니다. 한국학교 선생님들도 우리의 자녀들이 선생님을 능가하여 미국 주류사회에서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민 1 세의 부모들의 당연한 바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역시 두 아들을 키우면서, 그들이 미국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당당히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남에게 뒤지지 말고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고 가르쳐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덕목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클라크 박사의 말을 뒷부분까지 들어 보면 그 내용이 조금은 다릅니다. 클라크 박사는 “소년들이여, 야망을 품어라! 돈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기적인 성취를 위해서도 아니고, 사람들이 명성이라 부르는 덧없는 것을 위해서도 아니고, 인간이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얻기 위한 야망을 품어라.”(Boys, be ambitious! Be ambitious not for money or for selfish aggrandizement, not for that evanescent thing which men call fame. Be ambitious for the attainment of all that a man ought to be.)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갖추어야 할 것을 얻기 위한 야망은 타인과의 경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신과의 경쟁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 제자들이 자신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존경받는 인간으로 자랐으면 합니다.

**인간이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얻기 위한 야망
우리의 자녀, 제자들이 자신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존경받는 인간으로 자랐으면...**

알림사항

수준별 역사문화 교육자료 <대한민국 국가 상징>

국가상징은 그 나라의 역사, 문화, 사상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국가의 공식적인 지표로서 국민적 자긍심의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국가 상징으로는 태극기(국기), 애국가(국가), 무궁화(국화), 국새(나라 도장), 나라 문장 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상징은 오늘을 살아가는 차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본격적인 역사교육의 출발점으로서 애국심을 고취하고, 화합과 조화를 이루는 중요한 역사자료입니다. 아래 링크된 주소로 들어가시면, 온라인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가상징'에 관한 다양한 수업자료(영어자료 포함)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상징' 수업자료 바로 가기 ----> <https://www.naks.org/jml/library-history-culture-material-by-level/2045-2019-02-09-06-17-54>

